

2025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여름방학 특별 공연
2025 GCM* Summer Vacation Special Program

창작 어린이극
children's theatre

우리말로 우리 날

The day of our voice



공연시간(50분) 11:30, 15:30(평일, 주말)

관람연령 만 48개월 이상

관람료 10,000원(박물관 입장료 별도)

2025. 7. 26.(토) ~ 8. 10.(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층 공연장

우리 말로 우는 날

《우리말로 우는 날》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더 연과 협력하여 제작한 창작 어린이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정보로 공연 안내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접근성: 자막해설/음성소개/쉬운 안내글/점자



우리말로 우는 날



"이 소리는 누구의 것일까?"

세상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소리라고 해서 꼭 귀로만 들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떨림이나 몸으로 느끼는 울림도 소리에요.

우리는 소리를 통해 나를 알아가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며
세상과도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말’도 소리의 한 가지예요.

마음과 삶을 담은 소중한 소리지요.

하지만 우리말을 빼앗겼던 아픈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일제강점기였어요.

〈우리말로 우는 날〉은 1946년 어린이 잡지 『주간 소학생』에 실린
『해방된 짐승들』이라는 짧은 희곡에서 시작되었어요.

유석빈이 쓴 이야기로 일제강점기에 목소리를 잃은 동물들이
해방 후 다시 자기 소리를 찾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는 누구일까?’

‘내 진짜 목소리는 무엇일까?’

‘우리말을 잃는다는 건 어떤 뜻일까?’

"내가 진짜로 내는 소리는 무엇일까?"

어느 날, 동물들은 더 이상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낯선 규칙에 따라 억지로 다른 소리를 흉내 내다가
진짜 자기 소리를 잊어버렸어요.

동물들은 편하고 익숙했던 소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과연 동물들은 자기 소리를 어떻게 찾게 될까요?

〈우리말로 우는 날〉은 여름방학 동안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열려요.

가족 모두가 함께 공연을 즐기고, 예술을 이야기하며
뜻깊은 시간을 나누게 될 거예요.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동물 가면과 그림자극, 호랑이 인형을 만나고
익숙한 동요도 함께 부를 수 있어요.

어린이들은 무대에 참여해 공연을 더욱 생생하게 즐기고 어른들은 오랜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며 자신의 진짜 소리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잠든 ‘진짜 소리’를 찾으러 동물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 볼까요?

글 김종석 용인대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는 선생님
연극을 만드는 연출가

진짜 소리를 찾기 위한 용기 있는 여정

먼 옛날, 동물들이 우리말로
'멍멍', '야옹', '꿀꿀', '음메' 하고 소리 내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하이에나가 나타나 마을을
지배하게 됐어요.

하이에나는 일본식 말을 억지로 강요했어요.
강아지는 '완완', 고양이는 '나냐', 돼지는 '부부',
소는 '모오'라고 울라고 했어요.

동물들은 낯선 소리를 억지로 흉내 냈지만 진짜
마음을 전달할 수 없게 되자 점점 침묵 속에 갇혔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진짜 소리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36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드디어
하이에나는 물러가고 독립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물들은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자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서 마음과
목소리를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때 숲속에 살던 다람쥐가 말했어요.
"숲속 깊은 곳에 사는 호랑이가 우리 기억을 지키고
있어. 가서 도움을 청해 봐."

동물들은 용기를 내서 자기 소리를
되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길에서 동물들은 다른 나라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개는 러시아 말로 '가프가프', 고양이는 프랑스 말로
'미야우', 소는 영어로 '무우', 돼지는 중국 말로 '흥흥'
하고 소리 내요.

동물들은 신기해서 그 소리를 흉내 내봤지만
자기 마음과는 맞지 않았어요.
결국, 진짜 자기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숲속을 헤매던 동물들은 마침내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무섭기만 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호랑이는 아주 오랫동안 말을 지켜온 지혜롭고
따뜻한 소리의 수호자였어요.
호랑이는 동물들에게 '기억의 연못'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알려주고 "네 마음이 울 때,
너는 어떤 소리를 내고 싶니?"라고 질문했어요.

동물들은 기억의 연못에서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말'을 불러내고 진짜 자신의 소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소리를 마음껏 나누기 위해
신나게 자기 마을로 돌아갔어요.



경험하는 연극



아이들에게 말은 단순히 배우는 기술이 아니에요.
말은 내 마음과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소리이니깐요.

〈우리말로 우는 날〉은 아이들이 ‘자기만의 말’을 만나고
진짜 마음의 소리를 느껴보는 연극이에요.
이 연극에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말과 소리의 진짜 의미를 어떻게 감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공연을 만들었어요.

무대에는 배우들이 머리 위에 가면을 쓰고
얼굴을 드러낸 채 동물처럼 행동하고 감정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이들은 배우들의 몸짓과 눈빛을 통해
몸이 내는 소리와 감정을 먼저 느끼게 돼요.

또, 아이들은 억지로 내는 낯선 소리와 자연스러운 자기 소리의 차이를 들으며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스스로 알아차리게 돼요.

동물들이 기억과 상상의 세계를 여행하는 장면은
그림자극과 인형극으로 꾸며서 몽글몽글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중간중간 동요가 나오면 다 함께 부르며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언어를 놀이처럼 배울 수 있도록 가사도 새롭게 바꿔 부를 수 있고
반복해서 계속 부를 수 있어요.

연극 속 호랑이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호랑이는 지혜롭고 따뜻한 존재로 등장해
“네 마음이 울 때, 너는 어떤 소리를 내고 싶니?”라고 질문해요.

〈우리말로 우는 날〉은 함께 울고, 웃고, 노래하며
아이들이 몸과 마음으로 ‘우리말’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소리는 내 마음과 얼마나 가까운지’ 아이들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글 정성훈 연극을 가르치는 선생님
연극을 만드는 연출가

기억과 흔적의 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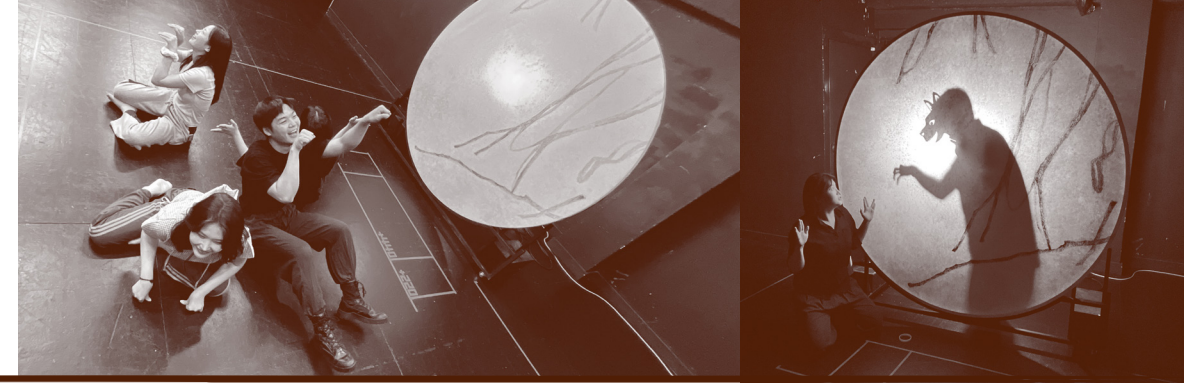
〈우리말로 우는 날〉은 그냥 이야기를 보여주는 연극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무대 속으로 직접 들어가 함께 장면을 만들고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함께 보여줄 수 있을지
오랫동안 고민하며 만들었습니다.

이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기억의 연못'이라는 상상의 공간이에요.
반짝이는 천과 조명, 소리, 그림자로 꾸며져 있어요.
배우들이 아이들을 연못으로 초대하면
아이들의 상상이 더해져 연못은 점점 특별한 공간으로 바뀔 거예요.
아이들의 기억이 연못을 멋진 공간으로 채우는 거죠.

무대 전체도 '기억'과 '흔적'을 보여주도록 디자인했어요.
동물 가면은 입체적으로 만들어
배우들이 머리 위에 쓰고 연기할 수 있게 했어요.
하지만 얼굴은 가리지 않아서 배우들의 표정과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 가면은 동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치예요.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대에 비치는 그림자도 역할이 있어요.
그림자는 기억이고 '소리의 흔적'이에요.



배우들과 동물들 모습 그리고 아이들의 손짓까지 그림자의 형태로 나타나면
무대는 현실과 상상이 함께 하는 신비한 공간으로 변해
'보이지 않는 것'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말로 우는 날〉은
'무언가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는 공연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은 머리로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움직이며,
손으로 만지듯 온몸으로 느끼는 기억이에요.
마치 아이스크림의 달콤한 맛을
놀이동산에서의 신나는 기분과 함께 떠올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연극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무대 속으로 들어가
함께 상상하고, 움직이고, 느끼는 열린 무대가 펼쳐질 거예요.

글 이유정 무대를 멋진 공간으로 만드는 무대미술가
연극을 가르치는 선생님

어린이 연극

해방된 짐승들

유 석 빈

때——8.15 이후의 어느날

곳——어느 산속

나오는 사람——산신령님.

나오는 짐승——닭, 소, 돼지, 염소, 여우, 토끼, 까마귀, 호랑이, 개.

무대——배경은 나무가 뿔뿔

하게 드러선 수풀. 돼지 이외의 다른 짐승들은 모두 등장하여 있다. 잠깐 뒤에 돼지가 어슬렁 어슬렁,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다른 짐승의 눈치를 보며 겁쟁이처럼 등장한다.

돼지 (호랑이 앞에 가서 굴뚝 절을 하면서) 호랑아 저씨,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왜 모이라고 하셨어요?

호랑이 오냐. 일본이 항복을 해서 우리 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우리를 짐승도 울음소리부터 왜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할테니까, 오늘

산신령님께서 우리 나라 짐승의 정말 울음소리를 가르쳐 주신단다.

돼지 고맙습니다. 호랑아 저씨. 어이구 좋아라. 어이구 좋아라. (느려선 가운데로 줄을 주며 들어간다.)

개 (고개를 기웃하며) 산신령님께서 어찌 이렇게 더디게 오시나.

여우 (고개를 기웃하며) 들새 (팔쪽시계를 보는제 하며) 오실 시간이 거반 됐는데, 까마귀야. 너, 잠깐 날러 가서 보고 오너라.

까치 (보는 시늉을 한다.) 아! 저기 오신다, 오셔. 산신령님께서 저기 오신다.

여러 짐승 어디 어디. (제각기 앞으로 나와서 보려고 한다.)

호랑이 쉬어. (하고 말린다.) 조용해라, 조용해.

여러 짐승 (정돈한다. 그리고 긴장한 빛이 떠돈다.) (‘에헴, 에

헴, 하고, 기침을 하며 산신령 등장.)

여러 짐승 산신령님. 안녕하십니까?

산신령 오오냐. 다들 모였느냐?

여러 짐승 예, 다들 모였어요. 산신령님. 어서 우리들에게 우리 나라 정말 울음소리를 가르쳐 주세요.

산신령 그래라. 누구부터 가르쳐 줄까? 처음부터 차례로 가르쳐 주마.

(닭을 보고) 닭아, 너는 8월 15일 전에는 뭐라고 울었니?

닭 예. 나는 “고게고교”라고 울었어요.

산신령 “고게고교” 근사하긴 하지만, 어째 왜 냄새가 몹시 나는구나. 인제부터는 “교교오”라고 울어라. 어디 울어봐.

닭 (황개를 치며 목청을 뻗어) 교교오. 교교오.

여러 짐승 (손뼉을 치며.) 야야 참. 잘 운다.

산신령 (소더러) 애, 소야. 너는 전에 뭐라고 울었니?

소 예. 나는 “모, 모.” 하고 울었지요.

산신령 못두 울었었구나. 인제부터는 “엄매애”하고 울어라.

소 엄매애, (서투르게)

여러 짐승 다시, 다시.

소 (크게) 엄매애. 엄매애.

여러 짐승 (손뼉을 치며) 잘한다, 잘해.

산신령 그 다음에는 돼지로구나, 돼지야. 너는 무어라고 울었었니?

돼지 예. 나는 무어라고 울었었던가. (고개를 기웃하더니) 울치, 울치. “구, 구.” 하고 울었지요.

산신령 인제부터는 짚풀이라고 울어.

돼지 짚풀. 짚풀. 짚풀. 짚풀.

여러 짐승 그만해. 그만해. (박수)

산신령 (염소를 데려) 네 이름은 뭐더라? 응, 염소영감이지. 영감은 무어라고 울었던가.

염소 일본말로 울던것은 말하기도 싫습니다. 어서 우

리 조선 울음소리를 가르쳐 주세요.

산신령 그래라. 너는 매애애애애라고 울어라.

염소 매애애애애애애애.

여러 짐승 (손뼉을 치며) 영감. 참 잘 하는구려.

산신령 (여우 보고) 여우야, 너는 무어라고 울었지?

여우 쿵, 쿵하고 울었지요.

산신령 인제부터는 캥캥이라고 울어라.

여우 예, 캥캥. 캥캥.

여러 짐승 애 저쪽 보고 울어라.

산신령 (토끼더러) 토끼님은 울던가 안 울던가.

토끼 울지는 않아도 말은 해요.

산신령 무어라고 말을 했니?

토끼 모시모시 가메요 가메 상요. 세카이노 우찌메 오마에호도……

산신령 애, 듣거도 싫다. 왜 말은. 인제부터는, 여보, 여보, 거북님, 네 말 들어보오. 천지간 동물중에 네말가지고, 저 같이 느린 걸을 처음 보았네……라고 해라.

토끼 (산신령님께서 가르쳐 주신것을 노래로 한다. 몸짓도 하면서.)

여러 짐승 (박수) 야야 아주 명창이로구나.

산신령 (까마귀 보고) 까마귀야. 너는 가르쳐주어도 잊어버릴테니까, 먼저대도 울어라.

까마귀 예, 까악, 까악, 까악.

여러 짐승 하하하, 하하하.

산신령 (호랑이 보고.) 산중호걸 호랑이로군. 전에 뭐라고 울었나.

호랑이 나는 언제든지 어흥이예요.

산신령 자네야 그렇겠지. 그럼 어디 울어보게.

호랑이 (우렁차게) 어흥, 어흥 어흥.

여러 짐승 아유 무서워라.

산신령 (개더러) 개야, 너는 무어라고 울었었니?

개 왕왕이라고 울었지요.

산신령 인제부터는 멍멍이라고 울어라.

개 멍멍, 멍멍멍멍, 멍.

여러 짐승 하하하하. (박수) —웃음판 속에서 막내 배런다—





이정연

2023 연극 <도가니> 메어리워렌 역
2024 연극 <래러미프로젝트> 레지플루티,어멘다 그로닉 역
2024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얼렁뚱땅! 뚱땅이의 하루!> 꾸러기 역
2024 뮤지컬 <No Day But Today> 모린 역



황연주

2024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얼렁뚱땅!뚱땅이의 하루> 뚱땅이 역
2024 연극 <고마운 약, 무서운 약> 약순 역
2025 연극 <그날의 타이밍 > 지유, 나영 역
2025 연극 <두근두근 알고리즘> 선영 외 멀티 역



이선주

2024 뮤지컬 <맘마미아!> 샘 역
2024 연극 <우리읍내> 조지 역
2025 연극 <제 18공화국> 리수독 사령관 역
The March100 합창단 단원



박인규

2024 연극 <세자매> 끌리이긴 역
2024 뮤지컬 <맘마미아> 에디 역
2024 뮤지컬 <No day but today> 양상블
2025 연극 <거리의 사자들> 스칼라토, 빌, 론 역



안수진

2024 뮤지컬 <No day but today> 모린 역
2024 뮤지컬 <맘마미아!> 타냐 역
2024 연극 <래러미 프로젝트> 애런 크라이펄스 외 7개 역
2024 연극 <소년 B가 사는 집> 윤아 역
2023 연극 <도가니> 베티 역
2023 연극 <과학하는 마음 진화하는 오후> 코지마 토시코 역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x 극단 단디

총괄	김종석
연출 및 대본	정성훈
미술, 드라마터그	이유정
출연	박인규, 안수진, 이선주, 이정연, 황연주
음악 감독	정용
무대 디자인	김태환
무대 제작 감독	박영훈
소품 디자인	윤미연
무대 제작	박서현, 김유리
소품 제작	윤지민, 한지원, 김채은
의상 디자인	이다혜
음향	백서영
음향 크루	박영성
조명	정해린
조명 크루	박민서, 최영빈
영상	박서연
공연 운영	정하정, 김유리
자막 운영	김민서

*도움주신 분
김은하(강남대학교), 김호연, 이고은(수원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총괄	이지희(관장 직무대행)
학예총괄	한준영(학예연구팀장)
기획지원	구정화, 한명희
운영지원	우수진, 정은주
홍보	김지애
시설	배지현
그래픽 디자인	김혜린
사인물	진디자인
인쇄	효성인쇄
자막 해설	(주)한국콘텐츠접근성연구센터
쉬운 글, 음성 소개	서수연
접근성 매니저	크리스텔
점자 번역	황진경
학예지원	강슬기, 김단오, 김수성, 박혜린, 천혜인
행정지원	오미미, 조은정, 최용학
운영	우지영, 오영진, 김수정, 신남중, 정아, 김영숙, 윤지현, 이유진, 정혜진, 장소명, 윤희애
시설	김광준, 김영춘, 유현호, 문성호
기술	나상훈
안내	박주희, 백선희, 송미연, 이해연, 이하빈, 최은진
미화	김은주, 김민정, 양자영, 방효복, 광성중
보안	유병규 이건호 김기원
뮤지엄숍	이동희

<우리말로 우는 날>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2025년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창작 어린이극으로 이 공연의 저작권은 저작권자들에게 있으며 재공연을 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협의해야 한다.

2025년 여름방학 특별 공연
창작 어린이극 <우리말로 우는 날>
2025. 7. 26. - 8. 10.

주최·주관



협력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더 연